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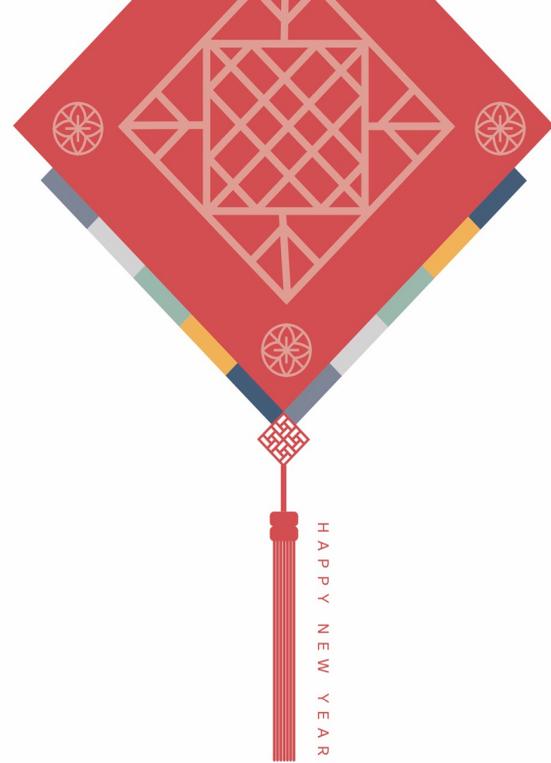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송가 384장

1.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2.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같하나
나의 앞의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의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3.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 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 멘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찬송가 559장

1. 사철에 봄바람 불어잇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집 즐거운 동산이라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를 사랑에 뭉쳐잇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2023 설 가정예배 순서지





하나님의 소망으로 가득한 우리 가정

예식사

인도자

복의 근원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2023년도에도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가정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다 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다 같이

기 도 가족 중

성 경 시편 71:1-5 인도자

설 교 “하나님의 소망으로 가득한 우리 가정” 설 교 자

기 도 설 교 자

찬 송 찬송가 559장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다 같이

주기도문 다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시편 71편은 큰 고난 중에 있는 한 시인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수치와 모함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쫓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의 힘은 이제 사라져가고, 사람들의 조롱하는 소리는 더욱 크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마땅히 절망할 수밖에 없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해 '더욱 더욱 찬송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는 이러한 믿음의 선포,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끊이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1) 피할 곳은 하나님 뿐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피할 곳을 찾아 숨는다는 것은 그곳이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단순히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시요 반석이시요 요새이시다!'라는 강한 확신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그늘에 피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피할 곳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세상은 나약한 자들이나 신을 찾는다고 조롱하지만,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편에 계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피한다면, 그는 반드시 보호받을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피하여 모든 일로 부터 보호 받고 은혜와 사랑이 더욱 충만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2)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누리며, 미래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말이면 한 해를 돌아보며 고백하곤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당시에는 하나님이 도우시는지, 함께하시는, 계시는지 조차 의심스럽기까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인도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십니다.(7절)' 소망은 미래적 의미가 담긴 단어입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영원히 함께하실 하나님을 누릴 때, 우리 영혼은 소망으로 가득차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 가정과 함께하십니다. 올 한 해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여정을 받아들이며, 겸손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과 2023년과 인생을 붙들어 주십니다. 이 소망으로 가득한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